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7호 [루게 제24770호] 주제103(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정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인민봉사총국 총국장 최영남동지, 인민봉사총국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광성동지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시비를 보시고 장군님께서 공장에 주신 유훈교시관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명당자리에 터전까지 잡아주시였으며 건설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평양메기공장>으로 부르도록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공장, 장군님께서 남기신 애국유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을 그 흔히 갖추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첫물메기가 나왔을 때에는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도록 몸소 공급안까지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지령실, 알깨우기운동, 실내 및 야외못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알아보시고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함으로써 평양시민들과 봉사기관들에 메기를 떨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공장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미 꾸러진 실내 및 야외못들에서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자면 양어에서 기본인 종자, 먹이, 물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짜주시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09년 9월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메기공장은 평양시민들의 중요한 후방공급기지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양어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우리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끊임없

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사연을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 의리이며 본분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령도로 튼튼한 양어토대가 갖추어져있다고 하시면서 애써 마련한 양어기지들이 실지 은을 내게 하자면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지금 일부 일군들이 아직도 이런저런 조건타발만 하면서 양어를 잘하기 위해 혁명적으로 달라붙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양어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절대로 중도반단할수도 양보할수도 없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에서 양어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온 나라에 양어열풍이 휘몰아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공장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공장구내에 정중히 모시여 이 땅위에 메기양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는 장군님의

공장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새끼고기는 물론 다른 메기공장들에도 종자를 원만히 보내줄수 있게 알깨우기능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당에서 사료보장대책을 세워주겠으니 공장에서는 먹이첨가제문제를 해결하며 메기의 생육기일을 줄이고 사료단위를 떨구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메기는 온수성물고기인것만큼 물온도보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버림물의 리용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태양열물가열기를 받아들이며 야외못들에 비닐막을 씌우는것을 비롯하여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업원들의 정신풍을 발동하며 그들의 생활을 풀어주기 위한 문제, 통합생산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문제,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종업원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는 문제, 양어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들을 여러 단위들이 서로 공유하는 문제, 과학연구부문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을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꾸리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에 필요한 강력한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로 물고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사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 승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갈 불타는 결의 설계 및 시공력량을 파견해주시겠다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일수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양어를 과학 하시였다.



축산에 힘을 넣으며 바다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함께 양어를 대대적으로 벌임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메기양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평양메기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도 말씀을 높이 받들고 메기양어를 잘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본사정치보도반

년간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넘쳐 수행

함남 지구관 광련합 기업소에서

함남지구관련합기업소에서 혁명의 불길기 세차게 타고르다. 종합된 자로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계획 많은 석탄을 보내주었다. 이것은 최근 10여년동안의 최고생산실적이다. 고원관광, 운곡관광, 수동관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 여러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전에 한걸음이 떨쳐나 계속 성과를 확대하면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16일까지 앞당겨 수행하고 연말전투를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년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메달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기세 좋게 전진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석탄공업성의 지도방조밑에 련합기업소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설비, 부속품,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교차생산조작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그리고 설비관리와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 퍼지 하였다. 일군들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며 대한 방점을 높이 받들고 탄광들에서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역량을 집중하여 새 탄밭들을 마련해놓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조직사업을 간지게 해나갔다. 일군들은 매 탄광들에서 굴진소대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전망이 좋은 채탄장들을 앞질러가며 마련하도록 하였다.

련합기업소총무부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앞선 채탄기술과 새로운 발파방법을 받아들이며 운반로선과 전차와 탄차, 석도판리를 짜고들며 석탄생산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운반경과 석도중대에서는 전양기와 석도를 비롯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생산지지에서 캐내는 석탄을 제때에 수송하고있다. 남산경과 전차경의 평의 일군들은 대중의 심정에 붙들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후방공급사업에 힘을 넣어 석탄생산에서 전제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청년경, 로선경이 일군들은 앞질러진 채탄의 탄밭들을 합리적인 굴진방법을 받아들이고 탄차편성을 잘하여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끌어내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 줄 한마음으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교차생산조직과 수송조직을 짜고들며 석탄생산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남산경과 전차경의 평의 일군들은 대중의 심정에 붙들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후방공급사업에 힘을 넣어 석탄생산에서 전제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청년경, 로선경이 일군들은 앞질러진 채탄의 탄밭들을 합리적인 굴진방법을 받아들이고 탄차편성을 잘하여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끌어내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운곡관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고기배들의 출어일수를 늘인다

김책수산사업소에서

김책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어획량을 부쩍 늘이기 위해 고기배들의 출어일수를 적극 늘이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최근에 수산부문을 추켜세우는데 대한 당의 요구를 높이 받들고 배수리와 어구확보에서 전제없는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바다로 진출하는 고기배들의 척수가 늘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대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양산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김책수산사업소는 배두산전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자국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단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교시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업소에서는 지금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기 위한 혁명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최근년간 크고작은 배수리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고기배들의 정비와 수리작업실적을 단계별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원양어업과 집중어로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배수리기일을 줄이기 위한 작전을 펴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리우고있다.

올해에 원양어로전투를 앞두고 철관과 용접봉을 비롯한 배수리자재가 적지 않게 확보된 속에 배수리직장과 동력직장 전투원들이 분발하였다.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손을 다그쳐 지난해 시기 여러달 걸리던 배수리전투를 짧은 기간에 해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사업소적인 어구전투가 여러차례 진행되고 원양어로작업에 필요한 소공품들을 원만히 갖추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졌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속에서 어로공들의 로동보호물자와 생활용품확보를 비롯한 준비사업도 잘되어 면바다에 나가는 고기배들의 척수와 출어일수는 훨씬 늘어나고있다.

원양어업과 집중어로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배수리기일을 줄이기 위한 작전을 펴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리우고있다.

면바다뿐이 아니라, 가까운 바다에서도 현재 사업소에서 출항한 고기배들에 의해 어획고를 높일수 있는 수산물생산전투가 한창이다. 한편 사업소구내의 맹동작업반원들은 출어일수가 늘어난 배들이 단산기를 날리며 부두에 도착하는 즉속 수산물가공과 맹동작업에서 승수를 내며 준비처너를 이룸에 힘쓰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핵심부를 국산화한 고온공기연소기술 도입

경성애자 공장에서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 공장당조직에서는 현대적인 굴식소성로건설을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중요한 투쟁목표의 하나로 제기하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공장의 기술집현이 뚜렷이 확충되었다.

이전에 이 공장의 70m굴식소성로에 도입된 고온공기연소기술은 이미 이 기술을 도입한 국내외 다른 단위들과 달리 그 핵심부들이 고속회전과 축열체를 우리 과학자들이 100% 연구개발도입한 것으로 하여 그 경제성의가 자못 크다.

수입에 의존하던 고속회전과 축열체를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개발완성하고 처음으로 연속식대형굴공로에 성과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민경제 각 부문의 가일로와 소성로들에 적은 투자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받아들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고 첨단을 돌파하여**

고온공기연소시 굴식소성로의 완성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공장책임일군들과 힘의를 거느린 고온공기연소기술의 핵심부인 고속회전과 축열체를 100% 국산화한 높은 목표를 대담하게 내걸고 과학기술적지도와 방조를 힘있게 받들고있다. 국가과학원은 이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애자소성공정의 특성에 맞게 1500°C이하에서 축열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벌집형축열체를 생산하였으며 그 설치를 기술적으로 맞게 진행하였다.

공정일군들은 아직은 어렵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기업관리와 기술관리를 현실효과에 맞게 더욱 짜고들며 새 굴식소성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공장자체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중요부문에 보낸 각종 애자생산을 원만히 보장하면서 지난해말까지 굴식소성로의 로케 및 부대설비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공장에서는 과학연구부문의 긴밀한 련계밑에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에서 제기되는 방대한 설계과제를 끝낸 데 이어 48종에 5300개가 넘는 부분품들을 차례로 제작하면서 새 기술도입과정을 책임적으로 추진하였다.

기계공업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이 올해 국가과학기술발전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이 공장

생산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가스발생로에서 나오는 양의 애자를 생산하는데 종전에 소비하던 석탄의 60%정도면 된다. 로를 운영해본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새 로에서는 벌집형축열체와 고속회전반이 자기 성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연소공기의 예열효과와 폐가스의 열 흡수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 직접적표현으로 폐가스온도가 종전로의 1/6로 떨어졌다고 한다.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한 굴식소성로는 그 특성으로 하여 소성대구간에서의 온도분포가 고르게 되고 유지가 좋다. 결과 그 어떤 조건에서도 로의 온도를 빨리 회복할수 있어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실수율을 훨씬 끌어올릴수 있다.

새 로에서는 지난해 각로에서 생산한것으로 되어있던 대형물체의 소성도 할수 있는데 결과 인민경제적요구가 높은 대형물체 자생산성은 20배로 늘어났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사상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실적으로 체현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금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통이 크게 벌리면서 각종 애자생산에 힘찬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당정책결사관철의 불길기 타고르다. 당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고 첨단을 돌파하여**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이 공장

생산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가스발생로에서 나오는 양의 애자를 생산하는데 종전에 소비하던 석탄의 60%정도면 된다. 로를 운영해본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새 로에서는 벌집형축열체와 고속회전반이 자기 성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연소공기의 예열효과와 폐가스의 열 흡수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 직접적표현으로 폐가스온도가 종전로의 1/6로 떨어졌다고 한다.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한 굴식소성로는 그 특성으로 하여 소성대구간에서의 온도분포가 고르게 되고 유지가 좋다. 결과 그 어떤 조건에서도 로의 온도를 빨리 회복할수 있어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실수율을 훨씬 끌어올릴수 있다.

새 로에서는 지난해 각로에서 생산한것으로 되어있던 대형물체의 소성도 할수 있는데 결과 인민경제적요구가 높은 대형물체 자생산성은 20배로 늘어났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사상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실적으로 체현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금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통이 크게 벌리면서 각종 애자생산에 힘찬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고 첨단을 돌파하여**

본사기자 지원철

기행

수령결사옹위의 신념 굵이치는 오산덕

회령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천지를 휘몰아치는 눈보라도, 폭풍치는 칼바람도 성스럽게 느껴지는 회령,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돐을 맞이하는 지금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그리움은 역사의 땅 회령으로 뜨겁게 끓어쳐흐르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한생, 혁명을 위한 투쟁의 한생,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한생이었습니다.》

회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강그리 바쳐오신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유년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이다.

얼마전 회령혁명사적지를 찾은 우리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실천투쟁에서 찾으신 민중민대의 정신적 유산으로 물려주신 혁명의 철리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었고 죽어도 혁명신념 변치 않을 심장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북방의 아침햇살이 장관을 펼칠 때 우리는 오산덕에 정중히 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올렸다.

위대한 태양의 빛살이 되어서 온 강산을 환히 밝혀주시는 어머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우리는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태양부, 수령부, 장관부를 누리게 하여주시는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회령혁명사적관 판장 리순실동무는 우리 인민들은 김정숙동지께서 남겨주신 혁명적 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기 위하여 주제 58(1969)년 9월 22일 어머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셨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님의 동상은 처음에 조선치마 지고리틀 입으신 모습으로 형성하였지만 수령님께서 김정숙동무에게는 조선 옷보다 군복이 더 어울린다고, 군복 입고 싸운 나날이 더 길다고 교시하시어 군복을 입으시고 군복처럼 애를 흘려 주신 모습으로 형성하여 모시게 되었다.

어머님의 왼손에는 특출한 전투공로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표창으로 수여받으신 금관지가 빛나고있었고 안고계시는 진달래에는 어머니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상징하는 12개의 활기, 24개의 꽃망울, 216개의 꽃송이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시이며 백두산호위장군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생애가 화폭처럼 안겨졌다.

무궁화성의 잘룩목과 홍기하의 골짜기, 대사하지기와 청봉민영, 불멸의 송가창작과 건군사에 남긴 공적...

어머님의 혁명생애를 더듬으며 우리는 강력한 총대에 혁명의 승리도, 조국의 번영도 있으며 혁명의 총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라는 것을 심장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머니의 동상을 모셔다시 찾으셨다는 주제 80(1991)년 8월 27일이었다.

어머님께서 안고계시는 진달래형상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월 24일... 2월 16일...》이라고 보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어 어머니의 동상을 뜨겁게 바라보시었다.

그해 12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니의 탄생일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증책을 맡겨주셨다. 그때에야 우리 인민은

아버이수령님께서 회령에 찾아오시어 어머니와 나누신 마음대화

가 무엇이었던가를 가슴뜨겁게 생각처럼 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올리시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시련을 열어놓으신 김정숙어머님, 절세의 위인을 선군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이 대대로 태양민족의 존엄을 떨치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불멸의 공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나.

주제 98(2009)년 2월 24일 회령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의 동상을 보시어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진다고, 어머니의 한생은 짧았지만 창으로 굽은 손이 짧았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어머니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장사 정련미동무로부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사적비 《빛나라 충성의 해발이여!》의 해설을 들은 우리는 어머니께서 애국의

뜻을 키우신 유서깊은 고향집으로 향하였다.

고향집은 흠뻑으로 된 초가집이었는데 가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비좁은 방안에는 뜻깊은 사적품들이 보존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니의 동상을 높이 받들어올리시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시련을 열어놓으신 김정숙어머님, 절세의 위인을 선군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이 대대로 태양민족의 존엄을 떨치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불멸의 공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나.

주제 98(2009)년 2월 24일 회령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의 동상을 보시어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진다고, 어머니의 한생은 짧았지만 창으로 굽은 손이 짧았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어머니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장사 정련미동무로부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사적비 《빛나라 충성의 해발이여!》의 해설을 들은 우리는 어머니께서 애국의

뜻을 키우신 유서깊은 고향집으로 향하였다.

고향집은 흠뻑으로 된 초가집이었는데 가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비좁은 방안에는 뜻깊은 사적품들이 보존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니의 동상을 높이 받들어올리시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시련을 열어놓으신 김정숙어머님, 절세의 위인을 선군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이 대대로 태양민족의 존엄을 떨치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불멸의 공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나.

주제 98(2009)년 2월 24일 회령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의 동상을 보시어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진다고, 어머니의 한생은 짧았지만 창으로 굽은 손이 짧았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어머니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장사 정련미동무로부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사적비 《빛나라 충성의 해발이여!》의 해설을 들은 우리는 어머니께서 애국의

뜻을 키우신 유서깊은 고향집으로 향하였다.

고향집은 흠뻑으로 된 초가집이었는데 가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비좁은 방안에는 뜻깊은 사적품들이 보존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니의 동상을 높이 받들어올리시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시련을 열어놓으신 김정숙어머님, 절세의 위인을 선군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이 대대로 태양민족의 존엄을 떨치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불멸의 공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나.

주제 98(2009)년 2월 24일 회령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의 동상을 보시어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진다고, 어머니의 한생은 짧았지만 창으로 굽은 손이 짧았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어머니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장사 정련미동무로부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사적비 《빛나라 충성의 해발이여!》의 해설을 들은 우리는 어머니께서 애국의

게 파괴되고 판자집과 초가집들이여 거기저기에 널려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계시던 자리에 세운 오산정각에서 회령시를 부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 밑에 어머니의 넉넉이 꽃핀 살기 좋은 고향으로 전변된 회령시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회령시너머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펼쳐진 사회주의무궁화원이 신히 보이는듯싶었다.

우리는 멀리까지 볼수 있다는 오산정각에서 강사의 해설을 듣고 어머니께서 정중히 고향을 떠나실 때 두만강을 건너신 망양나루터를 향하였다.

어머님께서 두만강을 건너시러 나오시었을 때 나루터에는 남부녀데하고 모여든 류랑민들이 차념했는데 경솔한들이 보임을 뒤지며 고향을 지르고있었다고 한다.

총대가 약한 탓에 망곡노의 신세가 되고 제 나라, 제 땅을 떠나는 마지막순간까지 왜놈들의 총대와 면시를 받아야 했으니 류랑민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흘렀다.

그 모든 참상을 목격하시며 나루배에 오르실 어머니께서는 멀어져가는 고향산천을 보고 또 보시며 해방된 그날 그리운 고향으로 꼭 다시 돌아오리라 굳게 마음다지시었다.

그날의 눈물겨운 정경을 더듬는 우리의 귀전에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힘을 키우는것보다 더 큰 애국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진폭이 큰 메타리도 울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치신 선군정도의 길, 험난한 CNC화살현의 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애국헌신의 길이었는지 가슴뜨겁게 마쳐왔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조국을 위한 힘을 더욱 익히게 키워주어.

이것이 망양나루터에서 우리가 피뎠는 심장마다에 쏘여박은 신념이었다.

이것은 회령혁명사적지를 찾는 답사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국민의 심장속에서 타오르는 신념의 불길이기도 하였다.

해마다 붉은기를 날리며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로 찾아가는 답사자들이 이런 신념을 만장약하고 자기들의 초소로 떠날라고 한다. 오산덕에서 다진 맹세를 변치 않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신념과 불멸의 업적을 끝까지 지키고 빛내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명마루에 승리의 붉은기를 반드시 휘날릴 것이다.

본사기자 정 선 철

혁명의 총대에 새겨주신 숭고한 뜻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참으로 우리 어머니의 한생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어머니의 한생이었으며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 시 빛나는 한생이었습니다.》

한없는 그리움으로 불리는 12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붉은기 날리는 주작봉마루에 올라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른다.

그러나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결사옹위의 한생을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하여 개회 깊어 주어야 하신 30여년전의 12월 24일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오늘 어머니에 대하여 많은것을 추억하였다고 교시하시었다.

순간 일꾼들은 어머니에 대한 사뭇한 그리움이 북받쳐올라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잠시 동안을 두시었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한생은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생이고 투쟁의 한생이었으며 영웅적위훈으로 빛나는 혁명가의 한생이었다고 교시하시었다.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여 아무 말씀도 있지 못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꾼들은 승연한 격정에 휩싸였다.

한 일꾼이 오늘은 김정숙동지의 탄생 기념일인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아버지장군님께 간절한 청을 드렸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고, 동무들이나 아마 자신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회에 젖으신 음성으로 우리 어머니의 한생은 너무나 짧았다고, 나는 어머니를 추억할 때마다 다그치고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었다.

아픈 가슴을 달래시며 할머니를 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어가시었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어머니의 삶의 전부였고 수령님의 신념안은 어머니의 첫째가는 생명이였다. 우리 어머니는 늘 나에게 수령님

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인민도 없다.

수령님을 든든히 보위하지만 총을 잘 쏘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은 법을 배워주군 하시었다. 내가 총을 사랑하는데 어머니의 덕분이다. ...

그날의 기억은 일꾼들로 하여금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생을 붙잡아 수놓아오신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자욱을 승연한 마음으로 더듬어보게 하였다.

항일의 혈전장들과 준엄한 사신의 고비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기 위하여 환문을 서슴없이 내내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귀감으로 뚜렷이 안겨온다.

홍기하전투, 대사하지기전투, 무궁화성의 잘룩목전투...

그도록 총대를 사랑하시였기에 해방된 조국땅에서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돌리시고 수령님의 군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한몸이 그대로 생애, 방패가 되시어 아버지수령님을 견결히 보위하신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을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었고, 전 광 남

회고록과 더불어 안겨오는 어머님추억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한 한생이였다.

회령, 혁명동지들을 위한 한생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남다른 총알도 막아준 솜외투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 자신의 산에서 여러해동안 읽고 다니시던 솜외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 솜외투는 김정숙동지께서 지어드린것이었다.

어제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총알이 명주솜을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었다.

그때부터 김정숙동지께서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명주솜을 한줌두줌 모으시었다. 전투와 행군길에서도 그러고 마을에 잠깐 들렀다 가시는 길에서도 명주솜만은 잊지 않으시었다.

이렇게 마련하신 명주솜으로 김정숙동지께서는 외투를 만드는데 심혈을 쏟아부으시었다. 밤에도

인정미에 대하여 추억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쓰신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오늘도 우리모두의 심장을 울린다.

명주솜외투는 위대한 수령님께 꼭 맞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활개 웃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일을 늘 잊지 못하시며 숙영지에서 밤을 새거나 수를 잘 때면 그 명주솜외투를 덮곤 하였는데 몸이 훈훈하였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충성은 격정장에서 날아오는 총알도 막아주고 한겨울의 사나운 추위로 막아주었다.

한 부녀회원은 김정숙동지께서 포대만을 넘을 때까지도 그냥 따라오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 어서 돌아가라고 몇번이나 이르시었지만 막무가내였

다. 헤어지기 전에 김정숙동지께서 자신의 은가락을 부녀회원에게 끼워주고 그가 떠났던 빨간들이 오늘도 우리모두의 심장을 울린다.

명주솜외투는 위대한 수령님께 꼭 맞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활개 웃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일을 늘 잊지 못하시며 숙영지에서 밤을 새거나 수를 잘 때면 그 명주솜외투를 덮곤 하였는데 몸이 훈훈하였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충성은 격정장에서 날아오는 총알도 막아주고 한겨울의 사나운 추위로 막아주었다.

한 부녀회원은 김정숙동지께서 포대만을 넘을 때까지도 그냥 따라오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 어서 돌아가라고 몇번이나 이르시었지만 막무가내였

다. 헤어지기 전에 김정숙동지께서 자신의 은가락을 부녀회원에게 끼워주고 그가 떠났던 빨간들이 오늘도 우리모두의 심장을 울린다.

명주솜외투는 위대한 수령님께 꼭 맞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활개 웃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일을 늘 잊지 못하시며 숙영지에서 밤을 새거나 수를 잘 때면 그 명주솜외투를 덮곤 하였는데 몸이 훈훈하였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충성은 격정장에서 날아오는 총알도 막아주고 한겨울의 사나운 추위로 막아주었다.

한 부녀회원은 김정숙동지께서 포대만을 넘을 때까지도 그냥 따라오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 어서 돌아가라고 몇번이나 이르시었지만 막무가내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준다. -청봉송영지에서- 본사기자 적음

못 잊을 회령의 오산덕, 피어린 항일의 그 나날처럼 활짝 피어난 진달래를 안으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맑은 미소로 지시시고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신다.

동상앞에 정히 놓여지는 꽃다발들과 꽃송이들... 12월은 천만군민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에 마음껏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이 비껴나다.

항일의 어느해 겨울날 행군의 길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옷을 빨아드리게 되시었다. 그런데 갑자기 행군명령이 내렸 다. 박달나무도 얼어붙었다는 강추위여서 금방 반 옷은 벌써 땀뻑하게 얼어붙기 시작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저없이 그 옷을 품안에 넣으시었다. 얼룩한 추위속에서도 자신의 체온으로 젖은 옷을 말리우려라 결심하였던것이다.

간고한 행군은 계속되었지만 이겨내시던 모습, 그날의 그 기쁨이 오늘도 오산덕에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해갈같은 미소로 어렸는것은 아닌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도, 해 볼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용담한 일로 여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시였기에 품에서 말리우신 옷을 드시고 위대한 수령님앞에 서시였을 때 걸음을 하고계시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신다는 기쁨으로 벅속까지 스며드는 강추위를

이겨내시던 모습, 그날의 그 기쁨이 오늘도 오산덕에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해갈같은 미소로 어렸는것은 아닌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도, 해 볼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용담한 일로 여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시였기에 품에서 말리우신 옷을 드시고 위대한 수령님앞에 서시였을 때 걸음을 하고계시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신다는 기쁨으로 벅속까지 스며드는 강추위를

이겨내시던 모습, 그날의 그 기쁨이 오늘도 오산덕에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해갈같은 미소로 어렸는것은 아닌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도, 해 볼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용담한 일로 여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시였기에 품에서 말리우신 옷을 드시고 위대한 수령님앞에 서시였을 때 걸음을 하고계시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신다는 기쁨으로 벅속까지 스며드는 강추위를

꽃송이

백두의 내장군께서는 혼연한 기백이 넘쳐나셨다. 그래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내뿜는 초차도 고이께서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힘겨운 걸음을 하고계시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보지도 못한 일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용담한 일로 여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시였기에 품에서 말리우신 옷을 드시고 위대한 수령님앞에 서시였을 때 걸음을 하고계시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도, 해 볼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용담한 일로 여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시였기에 품에서 말리우신 옷을 드시고 위대한 수령님앞에 서시였을 때 걸음을 하고계시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다음해농사차비에 펼쳐나섰다

책임지는 립장이 확고해야 묘술이 생긴다

연안에서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일때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수백정치의 물확보전투가 전개되는 규모에서 우리 크게 벌어지고있다. 여기서 주목할만 한것은 일군들이 자기 군의 물문제는 자신들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립장에서 물확보전투를 작전하고 전개해나가고있는것이다.

위 대내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가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 연백호물길을 따라 걷는 일군들이 있었다. 그들이 연백호물길을 걷게 된다는 사연이 있었다. 올해 봄에 백년배의 왕가물로 하여 물보장지에 많은 물을 팔고있는 구양저수지의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군에서는 가물극복을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 1천여정치의 물확보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책임일군들은 이것만으로는 마을을 놓을수 없었다. 당장전 70톤을 맞는 다음해에 위대한대원수님들의 령도의 지옥이 뜨겁게 어려지는 연방의 땅에 기어오르는 가을을 안아주는것이 일군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런데 다음해에 올해와 같은 왕가물이 다시 지속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는 조건에서 물해결은 농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경에 하는 김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춘수리강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관개시설들을 건설하고 여기서도 현대관수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관개체계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봉산군에서 당의 호소를 받고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려 많은 물을 잡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주목되는것은 최근 며칠 사이에 서흥강바닥의 밑으로 흐르는 물도 잡는 보막이공사를 하여 다음해에 수백정치의 물에 대를 확보할수 있게 된것이다.

지난 어느날 물확보전투장을 돌아보는 군장책임이 리원준동무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도처에서 우물과 굴포기가, 저류지건설 등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의 의도대로 물문제를 원만히 풀수 없기때문이었다.

그는 면밀히 타산해보았다. 지금 하고있는 공사들을 완공한다고 해도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물량의 10%밖에는 해결할수 없었다. 올해에 지속된 왕가물로 하여 서흥호의 물이 크게 줄어든 조건에서 적어도 60%의 물을 확보해야만 하였다. 더우기 다음해에도 왕가물이 들것이라는 예보는 더 많은 물원천을 찾았을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물원천이 더는 없었는가?

혁신적안목으로 현실을 대할때 좋은 방도를 찾을수 있다. 일군들과 함께 군민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책임일군은 사흥강기슭에서 그 방도를 찾아내게 되었다. 그는 일군들에게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 서

연안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이내야 합니다. 모든것을 책임지겠다는 립장에 설 때 막대한 길도 열립니다.》

일군들은 이런 립장에서 사색을 이어가며 서로의 의견을 놓고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 이들은 구양저수지물길과 9. 18저수지에서 뱀이나간 간선물길과의 거리가 멀어질까봐 2천여m의 구간에서 새 물길을 내고 역수양수기를 설치하면 얼마든지 구양저수지에 연백호물길의 물이 들어가게 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연백호와 구양저수지사이에서 료탄산물길이 형성되어 다음해 농사철전까지 연백호의 물을 구양저수지에 채워 농사에 필요한 물을 보충할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가을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1천여정치의 물확보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기때문에 구양저수지의 물확보문제만 풀리면 다음해에 이같은 작전을 지속한다고 하여도 농사를 안정하게 지을수 있었다. 이 안은 확실히 실적이 있는것으로 하여 모두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중심고리를 두었던 일군들은 구양저수지에 연백호의 물을 잡기 위해 료탄산물길을 형성하는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많은 토향을 처리하여 잠판을 파낸 후 보수해야 하는 공

를 찾아냈다. 강바닥을 파낸 후 2cm의 두터이로 진흙다짐을 한 다음 박막을 깔고 그우에 1m 두께로 토 진흙다짐을 하도록 하였다. 보를 쌓으면서는 비닐박막을 리용하도록 하였다.

흙바닥으로 보를 쌓는데도 힘을 썼다. 강바닥으로는 돌전지가 흩날려 나가지 못하게 조건에서 흙바닥을 리용하면 운반에 편리했고 공사속도를 높였면서도 보를 든뒤의 생수를 줄였다.

묘술도 실천에 옮겨져야 큰 은을 낼수 있는 법이다. 일군들은 이런 립장에서 단단의 준비비를 보막이공사를 시작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시키기 위한 사상공포로 하여 온 군이 불꽃였다.

당장전 70톤이 되는 다음해 농사에서는 장춘을 부러뜨리는 군민의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열의를 하늘을 찌를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른 새벽이면 남포다 일찍 작업장에 나와 미대를 메고 어두워질 때까지 달려 작업장을 뜨지 않았다. 난관을 맞받아 앞체를 메고나가는 일군들의 투쟁기운에 고무된 농장원들이 한사칼같이 펼쳐나선 결과 보막이공사는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되면 당의 의도대로 혁신적인 안목에서 현실을 대하고 방도를 찾아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때 어느 단면에서나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지 않겠는가?

김강철

이렇게 되면 당의 의도대로 혁신적인 안목에서 현실을 대하고 방도를 찾아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때 어느 단면에서나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지 않겠는가?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한 올해 농사공포를 잊었습니까. 다음해 농사에서는 성과의 열쇠는 바로 물확보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물문제를 반드시 풀이 풍요한 가을을 얻어야 합니다.》

책임일군의 절절한 호소는 일군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대담하고 용기 어린 작전이 펼쳐졌다. 여기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보막이위치를 지대적특성에 맞게 정하는 문제였다. 일군들은 집체

를 찾았는가? 어떤 립장에서 단단의 준비비를 보막이공사를 시작하였는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시키기 위한 사상공포로 하여 온 군이 불꽃였다.

당장전 70톤이 되는 다음해 농사에서는 장춘을 부러뜨리는 군민의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열의를 하늘을 찌를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른 새벽이면 남포다 일찍 작업장에 나와 미대를 메고 어두워질 때까지 달려 작업장을 뜨지 않았다. 난관을 맞받아 앞체를 메고나가는 일군들의 투쟁기운에 고무된 농장원들이 한사칼같이 펼쳐나선 결과 보막이공사는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되면 당의 의도대로 혁신적인 안목에서 현실을 대하고 방도를 찾아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때 어느 단면에서나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지 않겠는가?

김강철

이렇게 되면 당의 의도대로 혁신적인 안목에서 현실을 대하고 방도를 찾아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때 어느 단면에서나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지 않겠는가?

사와 함께 우물과 굴포기와 보수, 저류지복구, 보막이공사를 동시에 벌이고나가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땅이 깊이 얼기 전에 총공사량의 70%인 1단계공사를 해체할 높은 전투목표를 세우고 공사에 필요한 나무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를 선형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온 군에 사상적인 공세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칼같이 펼쳐나섰다. 일군들은 앞체를 메고 달려 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공사장마다에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현 일 혁신이 창조되었다.

김정일대주주의 심장을 불태우며 산악같이 펼쳐나선 근로자들은 공사장마다에서 애국의 수레를 끌고있었다. 연 300여m의 가물막이를 하여 하천의 물길을 돌리고 1만 900여m의 토량을 일정한 길이로 여러군 잠관공사에 동원된 관계관리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결사의 각오로 난관을 뚫고나갔다. 1단계공사를 계속하여 무조건 완결 대중의 드높은 열의속에 작적이 현실로 오르갔다.

이처럼 일군들의 사업은 책임지겠다는 립장에 확고히 설 때 묘술이 나지고 아무리 방대한 일감도 해체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명일

이처럼 일군들의 사업은 책임지겠다는 립장에 확고히 설 때 묘술이 나지고 아무리 방대한 일감도 해체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순천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순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생산한 일군들이 다음해농사차비에 작전의 시대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생산된 준비비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에서 증산의 중요성은 예전의 현대 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해농사차비문제가 제기된 자리에서였다.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할수 없는 농사차비문제를 놓고 협동농장일군들이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주거나 시범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하였다.

《올해 평리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일군들의 우월성을 알곡생산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산된 준비비를 가지고 생산의 조건에 있는 미생분해에 기계, 수백kg, 쌀, 소석회 등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만든 비료가 생산된 준비비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말곡증수를 담보하는 작물배치방법

운전군 복일협동농장에서

로 감자 대 강병이 두벌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농장원들의 장발적인전에 따라 포전별 특성을 따져가며 밭에는 물론 일부 논에도 밭벼를 심고 감자와 강병이, 콩을 겸배하였다. 이렇게 갈무리 알곡세벌농사를 짓고 동계와 봄에 공작물도 심어 농장원들의 생활을 향상시켰던것이, 이 사실이 공훈적이었다.

농사를 현원일군들이 지어 서는 안된다. 당의 농업정책과 추계농병의 요구대로 지대적특성과 각이한 기상기후조건에 맞는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내게 알곡증수의 커다란 예비가 되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은 다음해 포전별작물배치를 실리 있게 하기 위한 대책안을 세우는데 달라붙었다. 이들은 작업원들에 나가 밭이 닳도록 뛰며 필



래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작업반들에서는 퇴적장들에서 생산한 기름을 평균 20백엔대 이어 5백의 방선준비를 내고 모내기를 하였다.

방선준비의 효능은 논벼초기 생육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모살이 지난 시기도 2~3일 앞당겨진것은 물론 벼포기들이 김부러짐을 피며 왕성하게 자랐다. 한것은 땅속에 여러가지 미생물이 많이 생겨나 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이 주어졌기때문이었다.

가을의 결실 역시 좋았다. 농사조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방선준비를 밭벼로 내고 농사를 지은 포전은 다른 포전들보다 수확고다 정량당 평균 300kg이 높았다. 특히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없었다.

말곡증수의 중요예비의 하나가 방선준비생산에 있다는것을 알게 된 일군들은 저마다 자기네 농장에서도 이 방법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평리협동농장에 나가 보았다. 모든것이 사실이었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농장일군들의 열의가 비사히 높아지는 데 맞게 모든 농장들에 방선준비와 퇴비생산에 필요되는 기술자료를 내려보내었다. 또한 해당 부문 일군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방선준비장편도 면밀하게 세웠다. 이렇게 하여 시에서는 방선준비생산에 늘어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김창길

떨쳐나가는 가을은 밭갈이와 겨울생산을 다스려준다. 밭벼를 심고포전을 갈 때 밭에는 작물이 햇빛을 골고루 잘 받을수 있도록 방향을 옮겨 잡아 이랑을 지어내었다.

일군들은 밭갈이나 하천수변의 모래가 많은 땅에도 알맞은 작물을 심기로 하였다. 그것은 지난 시기 가물피해를 심하게 입은 이런 포전들에 강병이만 심었을 때에는 정보당 수확고도 그리 높지 못했다기때문이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은 다음해 포전별작물배치를 실리 있게 하기 위한 대책안을 세우는데 달라붙었다. 이들은 작업원들에 나가 밭이 닳도록 뛰며 필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산에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돌에 즈음하여 22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그녀의 동산에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이 화환을 진정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녀성들 평양육아원, 애육원 참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돌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녀성들이 22일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숙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상, 미세사람에 떠날때까지 품어주시려한 대동강기슭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이 떠나갔다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리

녀성들 화환 진정

그들은 수령정사유의를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시어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재보를 마련하여 주시고 주조제국의 평행한 미래를 안아주시는 백두산녀장군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그들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하고 목상하였다.

화환의 땀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정신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여 줄것이요, 혁명정신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여 줄것이요, 혁명정신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여 줄것이요》라는 글씨가 쓰여져있다.

본사기자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리

모든 사업의 성과는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위 대내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당의 정책과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혁명의 수도 평양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본사기자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리

서성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서성구역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구역안의 공장들이 개진되어 생산이 활성화되고있으며 기관, 기업소들은 물론 온, 인민반을 비롯하여 구역의 전반적인 면모가 완전히 일선되었다.

이 모든 성과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된것이라 하면 서성구역일군들의 일본에서는 주목할만한 점이 있다.

완강하게 내밀어

《구역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구역의 생산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하면 연료사업소와 석회 공장부터 개진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구역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구역당책임일군과 구역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나는 이야기이다.

구역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일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하루빨리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원만히 개선하고 구역의 면모를 일신시킬 불같은 마음과 고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석회와 세멘트, 타일과 각종 설비와 부속품...

본사기자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리

구역에서는 올라리에 회철이

나 하고 건물들에 의장차가 바라는것으로가 아니라 그 지역을 완전히 배워서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어 구역의 면모를 창조하였다.

구역에서는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짧은 기간에 주요도로 열은 물론이고 구역전 모든 곳까지 이르는 사업이 나날이 진행되어 온것이였다.

그러하여 짧은 기간에 모든 구역들의 도로망과 전반적인 살림집들의 지붕보수, 외장체질까지, 화초사업소건설, 외산과 급중학교와 하신소학교대부분과 함께 구역안의 다리와 지하건물보수, 외산지구 침전지대보수와 서산지구 물탱크확장공사 등 모든 대상들에 대한 건설공사와 보수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수림화, 원림화도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이 모든 성과는 언제나 전진하는 대로의 양상에서 모든 일을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일본새를 지니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구역일군들의 이신적의 사업기풍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서성구역 일군들의 사업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맡겨져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무언무언 끝장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갈 때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진다는것을 응원으로 말해주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리

구역에서는 올라리에 회철이

나 하고 건물들에 의장차가 바라는것으로가 아니라 그 지역을 완전히 배워서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어 구역의 면모를 창조하였다.

구역에서는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짧은 기간에 주요도로 열은 물론이고 구역전 모든 곳까지 이르는 사업이 나날이 진행되어 온것이였다.

그러하여 짧은 기간에 모든 구역들의 도로망과 전반적인 살림집들의 지붕보수, 외장체질까지, 화초사업소건설, 외산과 급중학교와 하신소학교대부분과 함께 구역안의 다리와 지하건물보수, 외산지구 침전지대보수와 서산지구 물탱크확장공사 등 모든 대상들에 대한 건설공사와 보수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수림화, 원림화도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이 모든 성과는 언제나 전진하는 대로의 양상에서 모든 일을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일본새를 지니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구역일군들의 이신적의 사업기풍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서성구역 일군들의 사업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맡겨져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무언무언 끝장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갈 때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진다는것을 응원으로 말해주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리

